

전문형 대통령경호실장에 대한 사례연구*

조 광 래**

〈요 약〉

본 연구는 대통령경호실 직원 출신인 제9대 대통령경호실장 박상범, 제13대 대통령경호실장 염상국 등 2인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하여 이들의 권력성과 전문성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대통령경호실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대통령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대통령경호실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대통령경호실장의 권력성과 전문성 분석은 문헌연구 중심의 질적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전문가 그룹으로부터의 증언을 통해서도 자료를 획득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과 방법에 따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9대 대통령경호실장 박상범, 제13대 대통령경호실장 염상국은 모두 비권력형 대통령경호실장으로 나타났다.

둘째, 제9대 대통령경호실장 박상범, 제13대 대통령경호실장 염상국은 모두 전문형 대통령경호실장으로 나타났다.

대통령경호실장의 권력은 대통령과의 신임관계나 물리적 거리에 의한 권력이 아니라 합법적권력과 전문적권력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대통령이 자신의 안전을 담당할 기관의 책임자를 임명할 때 성공하기 위한 준비된 대통령으로서 국가안보를 생각하고 전문성을 감안하여 국익을 위한 대통령경호실장을 임명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주제어 : 대통령경호실장, 권력성, 전문성, 권력형, 전문형.

* 본 논문은 조광래의 행정학박사 학위논문(2012)의 일부분을 재구성한 것임.

** 중부대학교 경찰경호학과 교수

목 차

- | |
|---|
| I. 서 론
II. 연구방법
III. 이론적 배경
IV. 연구결과
V. 결론 및 제언 |
|---|

I. 서 론

대통령경호실은 1963년 12월 17일 창설된 이후 1968년 무장공비 청와대 습격 미수 사건, 1974년 박정희 대통령 시해 미수사건(육영수 여사 저격사건), 1979년 박정희 대통령 서거, 1983년 전두환 대통령 시해 미수사건(미얀마 아웅산 묘소 폭파사건), 2000년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경호안전활동, 2002년 한일 월드컵 경기대회 경호안전활동, 2005년 부산 APEC 경호안전활동 등 국내·외 주요행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등 다수의 위기와 성공을 거듭하면서 성장해 왔으며, 2008년에는 대통령실 경호처로 조직이 변경되었으나 2013년 대통령경호실로 환원되면서 세계 최고의 경호전문기관으로 도약하고 있다(대통령경호실 홈페이지, www.pss.go.kr, 검색일 2013.8.23, 내용재구성).

대통령경호실이 경호전문기관으로 양적, 질적으로 성장하는 동안 과거 권위주의 정부 당시 파생된 부정적 인식이 지금까지 일부 존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단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대통령경호실이 1993년 김영삼 정부, 1998년 김대중 정부, 2003년 노무현 정부 등 민주주의 정부를 거치면서 경호전문기관을 표방하고 고유의 경호업무에 매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대통령직 인수위가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 산하 경호처로 조직을 개편하면서 “조직이나 예산 모두 불필요할 정도로 비대해졌다고 판단했다. 권위주의 시절의 유산을 청산하고 정상화

했다. 정보수집 등 경호 이외 기능은 사실상 폐지되고 경호 본연의 업무로 돌려 놓는다”고 언급(2008.1.16)한 것은 정치권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대통령경호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오해를 상당부분 포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대통령경호실은 2013년 9월 기준 지금까지 2013년 현재 재임하고 있는 박홍렬 경호실장을 포함하여 16명의 역대 대통령경호실장이 있다(표 1 참조).

〈표 1〉 역대 대통령경호실장

구분	직급	성명	근무기간	주경력	비고
박정희 정부	1대	차관급 홍중철	1963.12 ~ 1964. 5	군출신	5.16 주도세력
	2대	장관급 박종규	1964. 5 ~ 1974. 8	"	차장에서 승진
	3대	" 차지철	1974. 8 ~ 1979.10	" (정치인)	4선의원 출신
최규하 정부	4대	육군준장 육군소장 정동호	1979.11 ~ 1979.12 1980. 8 ~ 1981. 7	"	직무대리 임기후 사단장
전두환 정부	5대	육군중장 장관급 장세동	1981. 7 ~ 1984.12 1984.12 ~ 1985. 2	"	임기후 안기부장
	6대	장관급 안현태	1985. 2 ~ 1988. 2	"	차장에서 승진
노태우 정부	7대	" 이현우	1988. 2 ~ 1992.10	"	임기후 안기부장
	8대	" 최석립	1992.10 ~ 1993. 2	"	헌병감 출신 차장에서승진
김영삼 정부	9대	차관급 박상범	1993. 2 ~ 1994.12	경호실 출신	임기후 국가보훈처장
	10대	장관급 김광석	1994.12 ~ 1998. 2	군출신	
김대중 정부	11대	차관급 안주섭	1998. 2 ~ 2003. 3	"	육군소장 국가보훈처장
노무현 정부	12대	" 김세욱	2003. 3 ~ 2007. 3	경찰출신	경찰청장 출신
	13대	" 염상국	2007. 3 ~ 2008. 2	경호실 출신	차장에서 승진
이명박 정부	14대	" 김인중	2008. 2 ~ 2011.10	군출신	육군대장 출신
	15대	" 어청수	2011.10 ~ 2013. 2	경찰출신	경찰청장 출신
박근혜 정부	16대	장관급 박홍렬	2013. 2 ~ 현재까지	군출신	육군대장 출신

대통령경호실과 그 조직원들이 이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인 전문화 노력과 대국민 홍보를 진행하고 있으나 이는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기 재임했던 대통령경호실장에 대한 다소 부정적인 인식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세계 최고의 경호전문기관을 표방하는 대통령경호실이 기본적인 경호업무에 있어서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며 이를 지휘하고 대표하는 대통령경호실장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대통령 경호실장이라는 직책은 대통령의 절대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의 수장이다. 경호실장도 경호실 조직의 일원으로서 한 명의 경호원인 것이다. 따라서 경호실장도 전문 경호원과 마찬가지로 경호원으로 갖추어야 할 전문지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경호행사에서 “지휘권 단일화의 원칙”에 따라 경호실장이 현장 지휘책임을 갖고 있으며 대통령이 위협에 빠지는 돌발 사태가 발생할 경우 위급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순간적이고 냉철한 경호판단을 통해 대통령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 이것이 경호실장으로 마땅히 갖추어야 할 경호업무의 전문성이다. 하지만 대통령학 연구에서 대통령 주변 중에서 대통령비서실장과 장관, 그리고 영부인에 이르기 까지 여러 연구가 있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대통령경호실장에 대한 연구는 극히 일부 진행되고 있는 실정으로 조광래의 ‘대통령경호실장에 대한 연구’(2012a), ‘역대 대통령경호실장 유형분석’(2012b)이 대표적으로 역대 대통령경호실장을 유형화하기 위하여 경호업무에 오랜 기간 근무한 경호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전문가회의를 통한 양적연구를 진행한 것이 특징으로 권력성을 유형화의 한 요소로 하고 대통령경호실장이 갖고 있는 경호에 대한 전문성을 나머지 한 요소로 하여 역대 대통령경호실장을 권력형/비전문형, 권력형/전문형, 비권력형/전문형, 비권력형/비전문형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는 조광래(2012a, 2012b)가 제시한 비권력형/전문형 대통령경호실장 중에서 대통령경호실 직원 출신인 박상범 경호실장, 염상국 경호실장 등 2인에 대한 사례 연구를 실시하여 이들의 권력성과 전문성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대통령경호실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대통령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대통령경호실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연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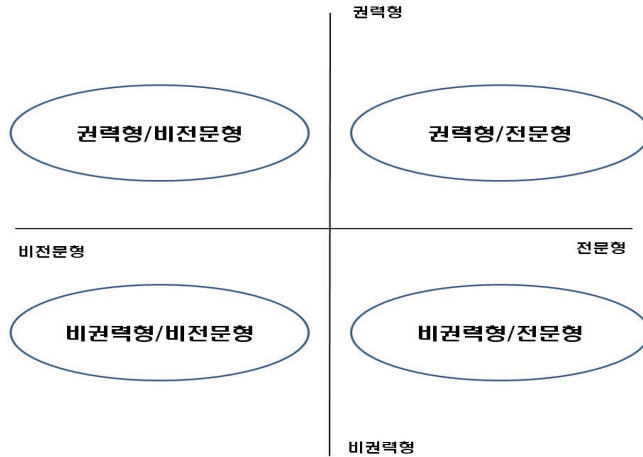
본 연구는 대통령경호실 직원 출신인 제9대 대통령경호실장 박상범, 제13대 대통령경호실장 염상국 등 2인이 대통령경호실장으로 임명되는 시기의 경호환경을 살펴보고 그들을 임명한 대통령과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대통령이 부여한 권력성과 대통령경호실장으로서 갖춰야 할 전문성을 중심으로 세부적으로 유형화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제9대 대통령경호실장 박상범, 제13대 대통령경호실장 염상국 등 2인의 권력성과 전문성 분석을 위한 기본적인 자료는 문헌을 통하여 수집하였으며 연구를 위하여 구성된 전문가 그룹으로부터의 증언을 통해서도 자료를 획득할 수 있었다(표 2 참조).

〈표 2〉 전문가그룹 참여인원

구분	지역	대학/업체	성명	직책	비고
대학교수 (5명)	서울	A대	A	교수	대통령경호실 경력직원
	충청	B대	B	교수	대통령경호실 경력직원
	경상	C대	C	교수	대통령경호실 경력직원
	부산	D대	D	교수	대통령경호실 경력직원
	충남	중부대	E	교수	연구자
경력직원 (5명)	서울	사기업	F	대표	대통령경호실 경력직원
	경기	공기업	G	임원	대통령경호실 경력직원
	전라	사기업	H	임원	대통령경호실 경력직원
	서울	사기업	I	대표	대통령경호실 경력직원
	충청	공기업	J	임원	대통령경호실 경력직원

본 연구에서는 조광래(2012b)의 ‘역대 대통령경호실장 유형분석’에서 정의한 대통령경호실장의 유형 구분을 참고하였다. 동 구분은 권력성을 유형화의 한 요소로 하고 대통령경호실장이 갖고 있는 경호에 대한 전문성을 나머지 한 요소로 하여 역대 대통령경호실장을 권력형/비전문형, 권력형/전문형, 비권력형/전문형, 비권력형/비전문형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그림 1 참조). 본 연구에서는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권력성과 전문성에 대한 문헌연구 중심의 질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림 1〉 권력성과 전문성에 따른 역대 대통령경호실장 유형 분류

첫째, 권력형/비전문형은 경호업무에 대한 전문성은 약하나 대통령과의 관계가 가까워서 대통령경호실 조직발전에는 도움이 될 것이고 자신의 개인적 영향력은 상당히여 군이나 경찰 등에 대한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유형이다. 하지만 역시 이러한 실세실무형도 경호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여 대통령에 대한 돌발사태가 발생할 경우 즉각 조치 능력이 부족하여 대통령을 위협에 빠지게 할 위험이 높다.

둘째, 권력형/전문형이다. 이 유형은 대통령과의 친밀도도 상당히여 개인의 영향력이나 조직발전에도 도움을 주고 있으나 정치경향이 너무 강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유형의 대통령경호실장은 시간이 흐른 뒤 역사적 평가에서 부정적 평가를 받으며 대통령 개인의 심복으로서 정치자금을 관리하는 등 경호업무라는 본연의 업무 보다는 초법적 역할을 주로 하여서 결코 대통령경호실 조직발전에도 도움을 주지 못하였다.

셋째, 비권력형/전문형이다. 이 유형은 대통령과의 친밀도는 낮으나 경호업무에는 정통한 대통령경호실장을 말한다. 역대 대통령 중 몇 안 되는 대통령경호실 출신 대통령경호실장이 이에 해당된다. 경호업무에 정통하여 돌발사태 대응 등 대통령 절대안전 보장이라는 대통령경호실 본연의 업무에는 확실한 능력을 보이고 있으나 대통령과의 친밀도가 떨어져 대통령경호실 조직발전에는 별다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넷째, 비권력/비전문형은 경호업무에 대한 전문성은 약하면서 정치적으로 임명되고 대통령과 특별한 개인적 관계에 있지 않는 대통령경호실장 유형이다. 이러한 유형의 대통령경호실장은 단순히 정치적 목적에 의해 임명되었을 뿐 경호업무에 대해 전문성이 부족하여 만약 근접에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각조치 능력이 부족하여 대통령을 위협으로 몰아갈 수 있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대통령경호실장은 기본적으로 경호작전 개념을 이해하고 경호 지원 요소들에 대한 복합적인 지식을 갖추어서 그들을 하나로 움직이게 하도록 하는 지휘자의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물리적 거리의 정도에 따라 권력성이 주어지는 권력이 속성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대통령과 함께 하는 대통령경호실장은 대통령과의 물리적 거리가 가깝다는 이유로 인해서 권력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경호실장의 본연의 임무인 경호의 전문성으로 인해 그러한 권력성이 주어진다.

Ⅲ. 이론적 배경

1. 권력성

권력은 일반적으로 대상 인물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자의 역량을 의미하지만 사회학이나 정치학에서 여러 학자들이 다양한 의미로 사용하면서 불분명한 개념으로 남아 있다. 권력은 행위자가 대상 인물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태도에 대한 영향력까지도 포함하기도 한다. 권력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권력은 보복의 두려움 없이 대상 인물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한 개인의 역량을 말한다. 또한 한 개인이 사회적 관계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나 집단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이러한 권력은 한 사람에 대한 영향력 뿐 아니라 많은 인물들에 대한 영향력을 의미하기도 하며 때로는 사람에 대한 영향력은 물론 일에 대한 잠재적인 영향력을 의미하기도 한다(김대운, 1997).

사회적 관계가 있는 A가 B로 하여금 어떤 것을 하도록 만들 수 있을 때 두 사람 사이에서 권력관계가 형성된다. 이러한 권력관계의 경우 영향력 측정상의 어려움을

인식하여 권력이 실제로 행사된 권력으로만 한정 짓기도 한다. 권력관계에서 권력 행사자가 모든 환경에서 권력을 갖고 행사하는 것은 아니며 대상이나 환경에 따라 그 권력은 효과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권력은 상호작용적이며 행동지향적인 개념으로서 A라는 사람이 특정 자원을 소유함으로써 갖게 되는 능력을 통하여 상대방인 B라는 사람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고 그로 인하여 궁극적으로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행위를 말한다(오석홍, 2003).

대통령경호실장이 직책을 넘어선 상당한 권력을 갖고 행사하며 국정에 까지 간여한 적이 있었다. 그럴 때의 권력은 전문성에서 나온 권력이 아니라 그의 지위에서 나오는 지위권력(position power)적인 요소가 많았다. 위에서 살펴 본 권력의 분류 중에서 대통령경호실장이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심복으로서 대통령과 가깝다는 이유로 인해 자신이 행사했던 권력은 대통령경호실장이라는 지위가 가져다 준 것이었다. 물론 대통령경호실장이라는 자리가 갖고 있는 합법적 권한에 의한 합법적 권력도 있었지만 그것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력이었으며 그 외의 무소불위의 권력은 지위권력(position power) 중에서는 그 원천이 강제성 권력(coercive power)에서 나왔으며 개인적 권력(personal power) 중에서는 정보성 권력(information power)에서 나왔다고 분석된다. 대통령경호실장의 권력 원천을 종합해보면 <표 3>과 같다.

〈표 3〉 대통령경호실장의 권력 원천

구 분	권력의 원천
개인적 권력 (personal power)	전문적 권력(expert power)
	정보성 권력(information)
지위 권력 (position power)	합법적 권력(legitimate power)
	강제성 권력(coercive power)

출처 : French & Raven(1959).

2. 전문성

현대사회의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과정은 기존 지식의 활용임과 동시에 새로운 지식의 지속적 창출과정이며 이러한 활동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전문가라 부른다(김주원, 2004). 전문성은 다중경력시대에 개인의 평생 고용 가능성을 담보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원천능력으로 작용한다

고 볼 수 있으며 개인의 경쟁력은 차별화된 핵심역량을 갖추는 것에서 출발하는데 차별화 된 핵심역량을 갖추는 것이 개인의 전문성이라 할 수 있다(안상근, 2009).

경호업무의 전문가로서 경호원들은 다른 비슷한 업무를 하는 정부기관 소속의 공무원들과 구분되는 여러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경호업무에 투입되는 경호원들은 자신의 맡은 업무와 관련된 수단과 목표 모두에 관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자율성을 갖는다. 즉, 자신이 맡은 지역은 자신이 책임져야 하며 외부의 압력이나 통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특징을 하나의 경호원칙으로 하여 “자기담당구역 책임의 원칙” 이라고 한다.

둘째, 그 분야의 업무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유일한 사람들인 전문가들에 의해 성과의 평가기준이 설정되어야 한다는 믿음이다. 경호업무의 전문성은 외부에서 평가할 수 없을 정도의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다.

셋째, 높은 수준의 직업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경호 대상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 뿐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자기희생까지도 감수해야 함을 의미한다. “자기 희생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넷째, 경호원으로서 전문 직업에 대한 몰입이다. 전문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을 갖고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정신력이 요구된다.

다섯째, 전문성이다. 일반적으로 경호업무의 전문가는 장기간에 걸친 반복적인 숙달 훈련과 임용 전에는 물론 임용 후에도 지속적인 교육 및 훈련에 의해 특정 분야의 전문기술과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호업무의 전문성이란 “대통령의 절대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경호업무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문제해결에 성공할 수 있는 능력으로 특정 분야에 대한 지식과 기술 및 윤리적 기준을 바탕으로 경호행사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즉, 전문성은 “오랜 훈련과 교육을 통하여 얻은 체계적인 지식에 근거한 기술적인 업무와 전문적인 규범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화 시대를 맞아 과거와는 달리 국가원수들 간의 모임이 활발해 지고 있다. 과거 격식을 갖추고 엄숙한 의식 하에 상대방 국가를 상호 방문하는 국제행사는 점차 사라지고 일정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잠시 실무적으로 방문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9.11이후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을 대상으로 하는 테러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국가원수에 대한 테러위협 역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테러의 위협이 증대하고 있는 지금의 시점에서뿐만 아니라 미래의 세대 역시 마찬가지로

국가원수에 대한 절대 안전의 보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시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6.25 전쟁의 종전(終戰)이 아니라 잠시 휴전하고 있는 국내 상황은 변한 것이 없으며 천안함 사건이나 연평도 포격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의 위협은 어떤 형태로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국경의 경계가 사라지는 21세기에서는 국제테러위협 역시 우리나라에서도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것이 현실이며 국가원수를 경호하는 대통령 경호조직의 역할은 지금까지도 중요했듯이 앞으로도 중요할 것이라는 데는 변함이 없다. 결국 경호업무의 전문성은 지금도 그러하지만 정권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어도 그 중요성은 더해갈 것이다.

IV. 연구결과

1. 경호전문가로서의 대통령경호실장의 권력성

1) 제9대 대통령경호실장 박상범

(1) 정보흐름의 통제

제9대 대통령경호실장인 박상범 경호실장(주요약력은 표 4 참조)은 취임 후 자신이 지켜본 전임 대통령경호실장들의 행태와 관련하여 대통령경호실 본연의 업무를 벗어난 월권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다. 권력기관으로서의 대통령경호실이 아니라 대통령 경호를 하는 본연의 업무를 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경호 이외 불필요한 요소는 다 차단시켰다.

그는 권력의 생리와 구조 때문에 거기에 한번 빠지게 되면 본인도 모르게 끌려들어 가게 되며 그것은 주변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며 일단 권력에 빠지면 경우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서지 않기 때문에 아예 권력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무척 조심했다(월간조선 2005년 6월호).

따라서 박상범 경호실장은 스스로의 범위를 정하고 자신을 한 사람의 일반 경호원으로서 여기려고 노력했다. 대통령경호실장은 대통령경호실 조직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일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대통령의 경호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평소에도 일반 경호원처럼 운동도 하고 사격훈련도 계속하였다. 이렇게 전임 대통령경호실장이 법을 어거거면서 누려온 불법적인 권력성을 옆에서 지켜 본 전문 경호원 출신인

박상범 경호실장은 스스로를 권력성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과거의 권력성의 원천들을 차단시켰기 때문에 박상범 경호실장 이후부터 대통령경호실장들은 대체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게 되었다.

물론 민주화된 정부에 들어와서는 대통령경호실장보다는 대통령과 정치적인 고락을 같이 해온 평생 동지 출신들이 소위 실세라는 이름으로 권력을 행사하였기 때문에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에 처음 만나는 전문 경호원 출신 대통령경호실장에게는 과거만큼의 권력성 접근 기회가 원천적으로 줄어든 측면도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박상범 경호실장의 정보흐름에 대한 권력성은 약했다고 할 수 있다.

(2) 정부인사 간여

박상범 경호실장과 같이 근무한 퇴직경호원은 관례로 내려오던 대통령경호실에 예속/배속된 부대의 지휘관에 대한 추천이 국방부나 경찰청에서 들어오는 경우에도 일정 선을 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특정 인물을 추천하는 것을 사양하고 자제하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하였다.

대통령과의 물리적 거리가 가깝다는 대통령경호실장만이 가질 수 있는 특성과 대통령경호실장으로서 기본적으로 행사하는 대통령 경호와 관련된 부서, 즉 군과 경찰에 대한 일정부분의 영향력 행사 가능성은 존재하게 되는데 박상범 경호실장은 스스로 이러한 대통령경호실장 본연의 영향력 자체도 멀리하려고 했던 것이다.

과거에 대통령경호실장이 대통령과의 평생동지라는 특수관계로서 대통령경호실장으로 임명이 되고 이렇게 형성된 권력성을 가진 대통령경호실장은 정부인사에까지 간여했던 것이다 박상범 경호실장부터는 이러한 인사에 간여하는 권한을 가진 자가 대통령의 가족이나 대통령의 아들 혹은 평생동지였던 정치인 출신의 실세그룹으로 바뀌었다. 군 출신 대통령의 평생 동지는 군 출신 부하였으며 정치인 출신 대통령의 평생 동지는 그 가족이나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군 출신으로부터 정치인 출신으로 권력이 이동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3) 정치자금 관리

박상범 경호실장은 전임 대통령경호실장들이 권력자와 근접해서 있었고 그러다 보니 대통령이 누구를 만나는지 어떤 정보를 취하는지를 알게 되면서 이러한 정보로부터 파생된 깨끗하지 못한 권력으로 인해 스스로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권력화가 되어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이를 경계하였다.

이미 전문 경호원 출신의 대통령경호실장은 새로운 문민대통령과는 사적인 연관성이 거의 없었다. 따라서 정치자금 관리라는 일은 대통령경호실을 떠나 대통령의 가신그룹이나 가족으로 넘어갔고 대통령경호실장은 대통령을 경호하는 전문 경호원으로서의 역할 이외에는 어떠한 권한도 주어지지 않았다. 대통령경호실장이 정치자금과 관련하여 언론에 보도되는 일은 없어지고 대신 가신그룹이니, 실세그룹이니 하는 정치인들이 정치자금이나 기타 비리와 관련하여 언론에 오르내리고 나중에 이러한 정치자금 수수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다. 정치자금과 관련한 박상범 경호실장의 영향력은 매우 약했다.

〈표 4〉 제9대 대통령경호실장 박상범 주요약력

구분	연도	주요약력
9대 대통령경호실장 박상범	1943. 4.10	충북 옥천 출생
	1964년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
	1970년	대통령경호실 임용
	1977년	대통령경호실 수행계장
	1980년	대통령경호실 수행과장
	1983년	대통령경호실 경호처장
	1990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차장(차관급)
	1993년	제9대 대통령경호실장
	1994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총장(장관급)
	1997년	국가보훈처 처장

2) 제13대 대통령경호실장 염상국

(1) 정보흐름의 통제

제13대 대통령경호실장인 염상국 경호실장(주요약력은 표 5 참조)은 1년이 조금 안되는 11개월 정도 재임했으며 대통령경호실장으로서 대통령 경호위해와 관련한 정보에 대한 흐름은 통제가 가능했지만 그 이외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대통령경호실은 자체 정보수집 기능이 없으므로 경호유관기관으로부터의 정보에 의존하고 있다.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을 통해 경호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경호관련 정·첩보를 수집·분석하는 정보관련 부서는 있으나 정보수집의 한계로 인한 대통령 위해 대책 마련에 한계가 있다(조광래·주일엽, 2001).

(2) 정부인사 간여

염상국 경호실장은 정통 경호원 출신으로서 본연의 업무인 경호에 만전을 기하면서 전문성으로 인정받는 대통령경호실 조직 위상 정립을 위해 노력하였다. 염상국 경호실장은 대통령경호실장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박상범 전 경호실장으로부터 조언을 구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경호와 관련된 부처의 인사개입과 관련한 권력성은 없었다.

(3) 정치자금 관리

정치자금 관리와 관련한 권력성은 찾아보기 어렵다.

〈표 5〉 제13대 대통령경호실장 염상국 주요약력

구 분	연 도	주 요 약 력
13대 대통령경호실장 염 상 국	1957. 8.23	강원 원주 출생
	1980년	경희대 졸, ROTC 18기 소위 임관
	1982년	대통령경호실 임용
		대통령경호실 경호부장
	2002년	월드컵 통제부장
	2003년	노무현 대통령당선자 경호팀장
	2004년	경호본부장
	2005년	부산 APEC 경호안전통제실장
	2006년	대통령경호실 차장
2007년	제13대 대통령경호실장	

3) 비권력형 대통령경호실장

박상범 경호실장은 대통령경호실에서 1971년부터 근무하면서 박종규 경호실장 등 역대 모든 대통령경호실장을 경험하면서 권력에 의해 말로가 불행해진 결과를 보면서 대통령경호실장으로서 권력을 멀리하겠다는 결심을 하였다.

“대통령경호실장은 대통령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통령이 누구를 만나는지, 어떤 정보를 취하는지 잘 알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본인도 모르게 권력화 되어 갑니다. 역대 대통령경호실장의 불행을 반면교사로 삼은 측면도 있었습니다. 대통령경호실장으로 발탁되면서 마음속으로 다짐한게 있었습니다. 「대통령경

호실장도 결국 한 사람의 경호원일뿐이다. 대통령경호실장은 대통령경호실 조직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일을 하지만 궁극적으로 대통령의 경호원인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일반 경호원처럼 생활하려고 노력했어요. 부속실을 통해서 청탁·로비가 많이 들어오죠. 하지만 대통령경호실장을 하면서 평소 아는 기업인도 만나지 않았어요. 과거 선배 대통령경호실장들의 마지막 모습을 봐 왔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면 어떻게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월간조선, 2005년 6월호).

염상국 경호실장도 경호원 출신으로 대통령경호실장으로 임명되었던 박상범 경호실장의 전례를 보고 권력과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으며 결국 경호전문가로서의 대통령경호실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2. 경호전문가로서의 대통령경호실장의 전문성

1) 제9대 대통령경호실장 박상범

(1) 유사기관 근무 경력

1971년 박상범은 7급 직원으로 대통령경호실에 들어가서 최초로 대통령경호실 조직의 수장이 된 정통 경호원 출신의 대통령경호실장이다. 대통령경호실을 지원하게 된 동기는 박종규 경호실장의 권유에 의한 것이었다고 한다. 박상범 경호실장에게는 다양한 수식어가 따라다닌다. 특히 10.26 현장에서 안기부 직원이 쏜 4발의 총알을 맞았으나 기적적으로 살아났으며 83년 아웅산 폭탄테러 사건에서는 대통령 본대 차량대형에 함께 이동 중 간발의 차로 폭발현장에서 벗어나 목숨을 건져서 불사조라는 별명이 따라다녔다.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김영삼 대통령은 군부독재의 잔재를 없애려는 노력을 했으며 정통 경호원 출신으로 박상범 경호실장을 임명한 것은 그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예라고 할 수 있었다.

박상범 경호실장은 대통령경호실에 임용된 이후 대통령의 지근거리에서 청와대 경내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행사장을 같이 다니며 근무하는 수행경호 분야에서만 근무를 하였다. 자신이 경호원으로 근무하던 중에 발생한 영부인을 잃은 문세광 사건과 대통령을 잃은 10.26 사건, 그리고 미얀마 아웅산 사건을 대통령경호실의 3대 실패사례로 지적하면서 이러한 실패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과학적이고 전문성 있는 경호기법을 확립해야 한다면서 대통령경호실의 전문성을 위해 노력해왔다. 박상범

경호실장이 대통령경호실장이 되기 전에 경호원으로서 가졌던 경호업무의 전문성은 매우 강하다고 하겠다.

(2) 동일기관 근무 경력

박상범 경호실장에 앞서 대통령경호실장으로 근무했던 대통령경호실장들도 경호기법의 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역할을 하였지만 박상범 경호실장이 취임하면서 대통령경호실은 보다 과학적이고 정교한 경호기법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 역대 대통령경호실장 중에서 가장 전문성이 뛰어난 대통령경호실장이었다. 경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육감이라고 지적하면서 사람이 움직이면 공기의 흐름이 변하고 이것을 감지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 근접에서 경호를 해야 하며 훈련을 통해서만이 이러한 직감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이 얻어질 수 있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늘 말하고 있는 전문 경호원이다(월간조선, 2005년 6월호).

다만 아쉬운 점은 전문경호원 출신으로서 임기가 너무 짧았다는 것이다. 재임기간이 1년 10개월밖에 되지 않은 것은 대통령이 전문 경호원 출신을 대통령경호실장으로 임명한 배경이 정치적 임명이라는 정치색을 배제하고 진정으로 경호업무의 전문성을 인정하여 자신의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의 수장으로 대통령경호실장으로서의 자리를 보장하였다기보다는 단순히 군사정부와의 차별성을 보여주기 위한 일시적 대통령경호실장 임명이었다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이후의 대통령들도 전문 경호원 출신을 대통령경호실장으로 임명하기를 꺼려하였으며 대통령경호실장이라는 자리를 단순히 논공행상으로 자신의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역할을 하였거나 혹은 군이나 경찰출신을 임명하여 정치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이다.

2) 제13대 대통령경호실장 염상국

(1) 유사기관 근무 경력

학군사관후보생(ROTC) 장교출신으로 특전사에서 군 장교생활을 하였다. 1982년 7급으로 경호실에 임용된 이래 전문 경호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대통령경호실법에 따라 대통령 당선자로 확정된 순간부터 대통령경호실에서 경호를 담당하게 되며, 이를 위해 이미 수개월 전부터 대통령경호실에서는 차기 대통령 당선자 팀을 구성하여 준비를 시키는데 염상국 경호실장이 당시 노무현 당선자 경호팀장이었다.

이후 노무현 당선자 수행부장으로 노무현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고 결국 대통령경호실장으로까지 발탁되었다.

염상국 경호실장은 경호과장, 경호부장, 월드컵 통제부장, 경호본부장, APEC안전 통제실장을 거쳐 2006년에는 대통령경호실 차장으로 승진하였다. 대통령경호실장이 되기 이전에 이미 대통령경호실에서 25년을 근무한 경호전문가였으며 이러한 염상국 경호실장의 전문성은 매우 높다고 하겠다.

(2) 동일기관 근무 경력

염상국 경호실장이 부임할 당시에 일부 언론에서는 그에게 “첫 문민 대통령경호실장”이라는 평을 하였다(한겨레, <http://www.hani.co.kr>, 검색일 2011.10. 1). 그러한 주장의 근거로는 박상범 경호실장의 경우 대통령경호실에서 퇴직했다가 실장으로 임명된 케이스이지만 염상국 대통령경호실장의 임명은 현직에 근무하면서 대통령경호실 차장으로 근무 중 대통령경호실장으로 내부 발탁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염상국 경호실장은 임기 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청와대 경호원이 “충성심과 명예심을 가진 경호안전 업무의 리더”라며 “대통령경호실은 고도의 전문성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요구되는 오케스트라와 같다”고 정의하면서 경호원에게 필요한 고도의 전문성을 강조하였다(중앙일보, <http://article.joinsmsn.com>, 검색일 2011. 10. 1).

염상국 경호실장의 재임기간은 11개월 정도였지만 대통령경호실장으로 근무하면서 남북정상회담(2007.10. 2-4)을 성공적으로 치렀다. 경호업무의 전문성을 기준으로 하는 염상국 경호실장의 전문성은 매우 강하다고 볼 수 있다.

3) 전문형 대통령경호실장

대통령경호실은 상반된 두 가지의 이미지를 갖는다. 항상 대통령 주변에 머물면서 대통령이 위치하는 곳의 360도를 사주경계하는 대통령경호실 직원의 모습이 대통령과 함께 언제나 국민들 눈에 잘 띄고 언론에 보도되면서 널리 알려진 개방된 조직이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대통령과 함께 365일을 같이 함께하는 경호원의 생활과 경호작전에 대하여는 잘 알려지지 않는 비밀스러운 조직이라는 특이한 조직인 것이다. 대통령이 움직이는 동선을 따라서 같이 움직이는 수행 경호팀의 중심에는 수행팀장과 함께 대통령경호실장이 있다. 경호지휘단일화의 원칙에 따라 경호임무 도중에 돌발사태가 발생하면 대통령경호실장이 전적인 지휘권을 갖는다. 모든 경호 관련 요소들은 지휘자의 명에 절대 복종하며 평소에 훈련한 대로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면서

대통령의 안전을 지킨다.

이러한 의미에서 대통령경호실장은 기본적으로 경호작전 개념을 이해하고 경호 지원 요소들에 대한 복합적인 지식을 갖추어서 그들을 하나로 움직이게 하도록 하는 지휘자의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물리적 거리의 정도에 따라 권력성이 주어지는 권력이 속성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대통령과 함께 하는 대통령경호실장은 대통령과의 물리적 거리가 가깝다는 이유로 인해서 권력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경호실장의 본연의 임무인 경호의 전문성으로 인해 그러한 권력성이 주어진다.

본 논문에서는 대통령경호실장을 유형화하기 위해 대통령경호실장으로서 갖추어야 할 전문성의 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하였으며 그 규정에 의해 전문성 여부를 결정하였다. 대통령경호실 근무 경력이 5년 이상이거나 대통령경호실에 예속/배속받은 작전부대장 경력을 거친 자에 한해 경호전문가로 인정하기로 하였다. 왜냐하면 경호 업무의 전문성으로 인해 대통령경호실장에게 주어지는 권력은 일반 권력과는 다른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대통령경호실장에게 주어진 권력은 국가를 대표하고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주어지는 것이다. 대통령경호실장이라는 자리는 그 직급이 장관급이건, 차관급이건 어떠한건 간에 국정원, 군, 경찰, 해경 등 국가안보기관뿐만 아니라 외교통상부, 법무부 등 일반부처까지 경호업무와 관련하여서는 이들을 지휘하고 통제하여야 하는 자리이다. 단순히 대통령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부여받은 권력성으로 이들을 지휘통제할 수 없다. 대통령경호실장이 가진 지위 권력으로서의 합법성과 개인적권력으로서의 전문성이 경호작전에 포함되는 모든 경호요소를 지휘통제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으며 이것이 바로 대통령경호실장이 경호전문가여야 하는 이유이다.

박상범 경호실장과 염상국 경호실장을 역대 최고의 경호전문가로 인정하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대통령경호실 직원으로 임용되어 수 십 년을 대통령경호실에서 근무하면서 쌓은 경호업무의 전문성은 당연히 인정된다고 하겠다. 박상범 경호실장과 염상국 경호실장은 경호원으로서의 갖춰야 할 조건으로 과학적일 것과 육감경호를 지적하였다.

경호란 총만 차고 대통령을 따라다닌다고 되는게 아닙니다. 경호는 과학적이어야 합니다. 가해자가 공격해 오는 순간을 포착해 머릿속으로 판단하고 대응행동을 하는

데 0.2초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0.2초라는 시간 동안 가해지는 2m를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위해 요소가 있는 일반인들과 같은 선상에 있어서는 절대 사고를 막지 못합니다. 놓치는 순간 사고가 발생하는 거죠(월간조선, 2005년 6월호).

경호라는 일에 대해서 흔히 무술을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육감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갑자기 움직이면 공기 흐름이 바뀝니다. 그것을 감지할 정도가 되는 사람이 근접경호를 해야 합니다(동아일보, <http://www.hani.co.kr>, 검색일 2011.10.24).

경호원은 뒤에도 눈이 달려 있어야 합니다. 경호원은 공기의 흐름이 바뀌는 것도 느낄 수 있어야 해요. 그래야 직감적으로 행동을 취할 수 있어요. 그 수준에 도달해야 진정한 경호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뭔가 사고가 날 듯한 느낌이 들면 반드시 이상한 일이 납니다. 그것을 막을 줄 알아야 합니다. 훈련이죠. 훈련을 통해 직감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군출신이건 경찰출신이건 출신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경호원의 전문성입니다(월간조선, 2005년 6월호).

총만 차고 다니는 것은 경호가 아니며 과학적이어야만 경호를 할 수 있다는 것과 오랜 경호원으로서의 경호행사의 경험을 한 경호원들만이 가질 수 있는 경호상 위해 요인에 대한 육감은 대통령 최근접에서 대통령과 함께 행동하는 대통령경호실장도 한명의 경호원인 이상 습득하여야 할 필수적인 경호전문성이기도 한 것이다.

3. 분석결과

제9대 대통령경호실장인 박상범 경호실장과 제13대 대통령경호실장인 염상국 경호실장은 비권력형/전문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당시 시대 상황과 연계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영삼 정부 시절의 대통령경호실장은 제9대 대통령경호실장인 박상범 경호실장과 제10대 대통령경호실장인 김광석이다. 군사정권 이후 민주화가 이루어지면서 사회 환경이 변화하고 군 출신들의 영향력이 약화되면서 대통령경호실장이 더 이상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변하였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군 출신 대통령경호실장의 권력은 약화되었고 대신 대통령에게

해결방안을 제시해주면서 대통령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는 새로운 권력기관이나 권력자가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정치인 출신 대통령과 함께 민주화 투쟁을 하면서 동지로서의 역할을 함께 해오면서 신임을 얻은 정치인들이었으며 이들이 새로운 권력자로 등장하게 되었다. 민주화 이후 대통령경호실장의 권력성은 대통령으로부터 개인적 신임관계로 위임받은 지위권력(position power) 중에서 강제적 권력이 약화되면서 합법적 권력과 개인적 권력(personal power)인 전문성 권력만을 행사하게 됨으로써 군사정부 권위주의 시절의 대통령경호실장과 비교할 때 그 권력성이 약하게 평가되는 데 이러한 권력성의 약화는 사회교환이론(social exchange theory)으로 설명된다. 특히 제9대 대통령경호실장인 박상범 경호실장은 대통령경호실 출신으로서 국민들의 직접선거로 출범한 민주정부에서 최초로 임명된 대통령경호실장이었다. 그의 전문성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었으며 특히 민주화 이후 첫 번째 대통령경호실장으로서의 적절한 시기와 맞물려 더욱 전문성으로 인한 개인적 권력이 강화될 수 있었다. 그의 경호업무에 대한 전문성은 그 시대의 상황을 반영하면서 더욱 강화되어 역대 대통령경호실장 중에서 가장 강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전략적상황이론(strategic contingencies theory)에 의하면 권력은 조직이 직면한 중요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전문성과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직책을 맡음으로서 그 전문성을 과시할 수 있는 기회의 두 가지 요인에 의존하는데 이미 대통령경호실 조직은 전문성에 의한 권력은 행사 가능하였지만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지위를 맡아야 한다는 상황적 여건으로 인해 더 이상 권력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었다.

노무현 정부의 대통령경호실장은 제12대 대통령경호실장인 김세옥 경호실장과 제13대 대통령경호실장인 염상국 경호실장이다. 조광래(2012)의 연구에 따르면 이들 2명의 권력성은 역대 정부 중에서 가장 약한 것으로 표시되고 있는데 이는 대통령의 의지와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 기존의 기득권을 타파하려는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가 대통령경호실장에도 투영된 결과이며 특히 염상국 경호실장의 전임인 김세옥 경호실장의 경우 대통령경호실장 중에서 최초의 경찰 출신이라는 점에서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김세옥 경호실장의 경우 경찰 출신으로 전문성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권력기관 중에서 상대적으로 약한 권력성을 갖고 있는 경찰 출신을 과거 권력의 상징이었던 대통령경호실장으로 임명하였다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갖고 있던 기득권 세력에 대한 반발의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대통령경호실 역시 권력성이 매우 약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김세옥 경호실장 이후 1년을 채 남기지 않고 경호전

문가 출신인 염상국 경호실장을 임명한 것은 다행스러운 결과지만 임기가 11개월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은 매우 아쉽다고 하겠다. 대통령경호실장의 권력은 앞으로도 결국 전문적 권력을 통해서만 나올 수 있으며 대통령의 안전을 확실하게 지키기 위해서도 대통령경호실장의 전문성에서 나오는 권력은 앞으로도 필요한 권력이라고 할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대통령경호실 직원 출신인 제9대 대통령경호실장 박상범, 제13대 대통령경호실장 염상국 등 2인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하여 이들의 권력성과 전문성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대통령경호실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대통령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대통령경호실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대통령경호실장의 권력성과 전문성 분석은 문헌연구 중심의 질적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전문가 그룹으로부터의 증언을 통해서도 자료를 획득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과 방법에 따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9대 대통령경호실장 박상범, 제13대 대통령경호실장 염상국은 모두 비권력형 대통령경호실장으로 나타났다.

박상범 경호실장은 전략적상황이론(strategic contingencies theory)에서 권력은 조직이 직면한 중요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전문성과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직책을 맡음으로서 그 전문성을 과시할 수 있는 기회의 두 가지 요인에 의존하는데 이미 대통령경호실 조직은 전문성에 의한 권력은 행사 가능하였지만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지위를 맡아야 한다는 상황적 여건으로 인해 더 이상 권력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었다.

염상국 경호실장의 경우도 김세옥 경호실장 이후 대통령의 임기가 11개월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참여정부로 대변되는 노무현 정부에서 충분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못하였다.

둘째, 제9대 대통령경호실장 박상범, 제13대 대통령경호실장 염상국은 모두 전문형 대통령경호실장으로 나타났다.

박상범 경호실장은 대통령경호실 출신으로서 국민들의 직접선거로 출범한 민주정부에서 최초로 임명된 대통령경호실장이었다. 그의 전문성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었으며 특히 민주화 이후 첫 번째 대통령경호실장으로서의 적절한 시기와 맞물려 더욱 전문성으로 인한 개인적 권력이 강화될 수 있었다. 그의 경호업무에 대한 전문성은 그 시대의 상황을 반영하면서 더욱 강화되어 역대 대통령경호실장 중에서 가장 강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염상국 경호실장은 경호전문가로서 노무현 정부의 임기 말기에 임명된 것은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대통령경호실장의 권력은 앞으로도 결국 전문적 권력을 통해서만 나올 수 있으며 대통령의 안전을 확실하게 지키기 위해서도 대통령경호실장의 전문성에서 나오는 권력은 앞으로도 필요한 권력이라고 할 수 있다.

2. 제언

민주정부가 출범하기 이전인 권위주의 정부까지 대통령경호실장은 권력의 상징이었다. 민주화가 이뤄지고 문민대통령이 선출되면서 대통령경호실장의 권력성은 감소되었지만 아직도 대통령경호실장은 정치성을 포함하면서 대통령의 성공적 국정운영에 있어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대통령경호실장이 자신의 합법적 권력을 벗어난 권력을 행사하는 경우 곧바로 대통령의 통치에 누가 되고 국정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하여 성공적인 대통령이 되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제9대 대통령경호실장인 박상범 경호실장과 제13대 대통령경호실장인 염상국 경호실장의 경우는 대통령경호실 직원 출신으로서 비권력형/전문형 대통령경호실장으로 분석되었다. 이들 2명의 대통령경호실장이 비권력형/전문형 대통령경호실장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대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이 있다.

첫째, 대통령경호실장의 권력성은 대통령과의 신임관계에서 나타난다. 앞으로의 대통령은 대통령경호실장을 임명하는데 있어서 그에게 위임하는 권력성에 대해서 고려해야 한다. 대통령경호실장은 그 지위권력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합법적 권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동시에 대통령경호실 조직을 아무리 축소하여 대통령실 소속으로 변경한다 하더라도 대통령경호실장이 대통령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개인적 권력을 행사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명박 정부의 사례에서 보여주고 있다. 대통령경호실장의 권력성 보유 여부에 따른 대통령경호실 조직의 축소와 소속의 변경은 경호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자칫 경호작전상 불확실성을 불어와 대통령의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대통령경호실의 전문화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것은 대통령경호실 조직을 권력기관화 하려는 의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으며 국가의 안보와 안전의 차원에서 고려한다면 당연한 것이다. 대통령경호실장의 권력은 대통령과의 신임관계나 물리적 거리에 의한 권력이 아니라 합법적권력과 전문적권력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둘째, 대통령경호실장의 전문성은 대통령의 절대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의 수장이라는 점이다. 대통령경호실장도 대통령경호실 조직의 일원으로서 한 명의 경호원인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경호실장도 전문 경호원과 마찬가지로 경호원으로 갖춰야 할 전문지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경호행사에서 '지휘권 단일화의 원칙'에 따라 대통령 경호실장이 현장 지휘책임을 갖고 있으며 대통령이 위협에 빠지는 돌발 사태가 발생할 경우 위급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순간적이고 냉철한 경호판단을 통해 대통령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 아울러 대통령경호실장은 경호원으로서의 전문성 이외에도 군·경과 함께 하는 경호작전체계를 종합적으로 조정 통제하는 전문적 지식을 갖출 것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이 자신의 안전을 담당할 기관의 책임자를 임명할 때 성공하기 위한 준비된 대통령으로서 국가안보를 생각하고 전문성을 감안하여 국익을 위한 대통령경호실장을 임명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김대운 (1997). 조직사회의 리더십 이해. 서울: 현대기획.
- 김주원 (2004).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방안-역량강화모델 적용을 중심으로. 강원발전연구원.
- 대통령경호실 홈페이지 (2013). www.pss.go.kr, 검색일 2013.8.23.
- 동아일보 (2011). <http://www.hani.co.kr>, 검색일 2011.10.24.
- 안상근 (2009). 지방 관공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오석홍 (2003). 조직이론. 서울: 박영사.
- 월간조선 (2005). 2005년 6월호.
- 조광래 (2012a). 대통령경호실장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광래 (2012b). 역대 대통령경호실장 유형분석. 한국경호경비학회지, 33, 한국경호경비학회, 229-260.
- 조광래·주일엽(2001),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1(1), 351-374.
- 중앙일보 (2011). <http://article.joinsmsn.com>, 검색일 2011. 10. 1
- 한겨레 (2011). <http://www.hani.co.kr>, 검색일 2011.10. 1

2. 국외문헌

- French, J. & B. Raven. (1959). The bases of social power. In Dorwin Cartwright(ed.), Studies in Social Power(pp.150-165). Ann Arbor, MI: Research Center for Group Dynamics,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Univ of Michigan.

【Abstract】

Case Study on Expert-type Director of 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Cho, Kwang-Ra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authority and expertise of internally-selected Director of 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PSS) through case-studies of the 9th Director of PSS Sang-Bum Park and the 13th Director of PSS Sang-Kuk Yeom, and to provide suggestions as to how to improve the expertise of PSS director and how to make PSS more trusted by the president and citizens. To do so, this study employs qualitative research on various references while acquiring testimonies from an expert group.

The result of the research is as follows.

First, the 9th Director of PSS Sang-Bum Park and the 13th Director of PSS Sang-Kuk Yeom are categorized as non-authoritative Director of 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Second the 9th Director of PSS Sang-Bum Park and the 13th Director of PSS Sang-Kuk Yeom are categorized as expert-type Director of 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It must be acknowledged that the authority of PSS directors does not come from close relationship with president or physical distance, but from legality and professionalism. Therefore, when appointing a person who is in charge of his/her own safety, the president must consider national security and professionalism in order to succeed as a ready president.

Key words : Director of PSS, Authoritative, Expertise, Authority-type, Expert-type